

필요광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일

서 글로벌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해외의 지역 콘텐츠가 그만큼 많다는 것에 부럽기도 하다.

영국 런던을 가면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이란 미술관이 있다. 테이트 모던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다가 오랜 시간 방치된 텅스강변의 벅크사이드(Bankside) 화력발전소를 영국의 한 예술 재단이 리모델링해 지난 2000년 선보인 현대미술관이다. 벽돌 벽면과 99m 높이의 거대한 굴뚝 등 옛 화력발전소 건물의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를 새롭게 개조한 테이트 모던은 이후 전 세계 작가와 미술 애호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세계적인 관광 광장이 되었다.

당달이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 일명 '테이트(Tate) 효과'를 통해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연 5천만~9천만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24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중국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관광상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상(印象/impression) 시리즈는 중국 정부가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장예모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중국

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오지 지역의 민화 외 전설을 엮어 인근의 명산과 호수 같은 실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출연한다는 이 공연은 2003년 10월 중국 계림 양수소에서 막을 연 '인상유삼저'(印象劉三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시리즈가 만들어졌다. 각 시리즈마다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이제 인상 시리즈는 중국 오지 도시들을 '이야기가 있는' 진정한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시킨 지역 브랜드가 되었다.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이 추정하 바에 따르면, 0.2% 이상 경제성장률을 하락시켰다고 한다.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하다. 전통시장에 손님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메르스가 IMF 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하소연한다.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업계의 시름도 날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굳이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역의 전통문화나 축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명소 마케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자산에 스토리를 입히고 새로움을 더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첫 발을 내디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소재와 전통자산을 활용해 글로벌(Global+Local)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 전설을 소재로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어린이 국악 뮤지컬,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성당 외관에 3D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소로 야간 불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융복합 콘텐츠 등 총 22개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사업을 선정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중국의 인상 시리즈처럼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은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문화원형을 '빅 킬러 콘텐츠'로 격상시켜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승촌보에 물놀이 시설...공기업 이래도 되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라고 하는 영산강 승촌보 일대가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는 오토캠핑장과 축구장 및 공원 등이 있어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엔제버더인가 이곳에 물놀이 시설까지 들어섰다.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수영복, 선베드, 파라솔, 평상, 텐트 등을 빌리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다.

문제는 이곳이 영리 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곳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했는지, 알고 보니 이들은 '비영리'시설이라며 관할 구청에 물놀이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수익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불법이며 공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산강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을 운영하는 한편 친수 관광·레저사업을 벌

이는 워터웨이플러스는 앞서 남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라고 하는 영산강 승촌보 일대가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는 오토캠핑장과 축구장 및 공원 등이 있어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남구정은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일부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또한 영리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설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시설 사용료 3000원을 빼고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4대강을 홍보하고 승촌보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홍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비영리 사업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슬그머니 돈벌이에 나선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농어촌 교육 기반 이대로 붕괴시킬 참인가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 수 반영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은 종전 31%에서 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과거엔 학교 숫자도 많은 지방에 교부금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는 학생 숫자가 많은 지방에 더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대폭 줄어든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방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에 비해 약 450억 원 가량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데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수가 많은 전남의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이 급속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 수가

많은 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 및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예산을 뚝뚝 떠안게 됨으로써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전남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교육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여수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도 배분 산정 방식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려서라고 바로잡아 보겠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현재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부르는 조치로 여길 뿐이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기반을 무너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류봉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이혼과 가족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얼마 전 제가 처리하였던 한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 여부를 가리는 사건도 아니었고, 단지 부부가 쌍방의 동의 하에 이혼 의사, 자녀 양육권자 및 양육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원에 온 협의이혼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이 사전 협의를 하고 법원을 방문했으니, 저도 사건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협의이혼 사건에서는 부부만 참석할 뿐 자녀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인데, 이제 갖 걸 음마를 땀 뚫한 딸을 잠깐이라도 맡길 곳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딸이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싫었던 것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던 딱의 눈과 그 어린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어린이의 눈망울은 "나와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라는 말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건들과 같이 그 부부의 이혼 의사와

딸의 양육권자 등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어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때, 저도 마음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다른 협의이혼 사건을 처리하면서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바로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본 협의이혼 사건으로 돌아가면, 위 어린이는 부모가 이혼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나이에 부모 중 일방의 보살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알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위 어린이가 느끼게 될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매년 초가 되면 언론을 통해,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보도

가 나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 통계 수치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위 협의이혼 사건과 같이, 365일 24시간 부모의 사랑만을 받고 자라도 모자라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불화와 이혼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는 말이지만,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갈등을 봉합하고 가족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와 '나의 감정'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배우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고려한다면, 적어도 제가 경험한 위 협의이혼 사건과 같은 광경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복원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기고

바보야, 이제 인문학이야!



김광호 여양고등학교 교사

방법'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문답법을 실시했다. 특히 외부강사는 이경준 작가의 '별 레이아웃'과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통해서 양심과 정의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학생들과 다양한 문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학생들은 이강연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과 종교,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

둘째, 동양 철학(공자, 맹자, 장자)과의 만남을 안내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데 나온 글귀를 보여주면서 문장을 재해석하게 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용서와 관용에 대하여 정의하도록 질문을 던졌다. 더 나가 공자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어떠한 점을 중시했는지 곱씹어 보게 했다.

셋째, 21세기를 선도하는 현대사상가(올리버 벵, 미셸 푸코, 제레미 리프킨)와의 만남을 진행하는 것이다. 요즘 사회는 일명 소비사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명명했던 장 보드리야드와의 만남을 명명했다. 삶은 자신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을 때 아름답지만 많은 현대인은 오

래전부터 개성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장 보드리야르는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더 나가 필자는 소비만을 중용하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야할지 학생들에게 우문을 던졌다.

넷째, 독서를 통한 생각 나누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 학생이 발표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이 세상이 너에게 무의미하다면, 다시 생각해, 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느냐. - 심장배반 중에서 -" 모든 학생에게 이 문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게 했다. 필자는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독후감을 쓰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발췌해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하고 그 문장을 재해석하게 했다. 더불어 왜 그 문장이 인상적이며,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하게 했다.

다섯째, 문학 답사를 통한 역사 바로 알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1월 학생들과 다산초당을 방문했다. 방문하기 전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읽으며 다산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다. 그리고 답사를 통해 궁금

했던 점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특히 학생들은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다산의 삶과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18년 동안 감실에서 유배생활하면서 500권 이상 책을 저술했다는 다산의 삶을 접했을 때는 내태고고 안 일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이상으로 인문학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항목을 다섯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단순 지식을 기억하게 했으며 출세를 지향하는 관문 역할만 했을 뿐이다. 과연 우리 국민에게도 출세만을 안내하는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과 같은 통 큰 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젠 우리나라도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즉 폭넓은 인문학 영역(고전, 철학, 심리, 역사, 독서)을 초등과 중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화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과 만남을 통해 자아와 삶에 대하여 진중하게 고뇌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게 해야 한다. 즉 역사, 철학, 심리, 고전, 문학의 바탕에 깔고 국어, 영어, 수학 지식을 더하자는 것이다.

無 等 鼓

올 초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3년 전쯤인가, 광주 대인시장을 둘러보러 갔던 '해 뜨는 식당'을 지나치게 됐다. '단 돈 1천 원에 맛있는 백반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대인시장에 있다'는 기사가 생각났다고 했다. 호기심에 슬며시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저녁 먹기엔 이른 시간이어서였는지, 주인 할머니 혼자서 반찬거리로 쓸 야채를 씻고 있었다.

맛있는 기분이 들어 밖으로 나오는데 식당 입구에 '2천 원' '5천 원' '만 원'이라고 쓰인 작은 철판

기부의 추억

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맨 위에 날짜와 함께 '도와주신 분'이라는 글자가 쓰인 것을 보고 "아하,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이게 그 목록인가 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 5만 원권 한 장이 손에 잡혔다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저기, 이것 보테 주세요"라며 돈을 건네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허겁지겁 식당을 나왔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 가던 그 친구, 불쑥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식당 앞 낡은 철판을 잊을 수가 없지 뭐어"

라고 했다. 또, 말지도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지만 돌이켜 볼수록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친구는 "그 뿌듯한 느낌, 뭔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 그때 그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었던 내가 정말 기특해" 라고도 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네 번째 익명 회원이 탄생했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한 약속을 지

키려고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또 다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사연에 감동받아 기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반쯤은 기부는 못해 봤지만, 그래서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내 친구라면 이 익명 회원이 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번뿐인 시간, 단 하나뿐인 육체로 벌어들인 돈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그 귀중한 돈을 '어쩌다 형편이 어려워진' 우리 이웃을 위해 선포 내용을 수 있는 가슴을 기쁘게 면 한다. 모두가 기부의 추억, 그 따듯하고 뿌듯한 추억을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상·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D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